

목장 모임 나눔지(12/8/2019)

1. 얼음깨기 (Ice-breaking):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을 말해보세요.

2. 마음을 여는 찬양: 112 장/ 436 장

3. 설교 요약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사 11:1-10):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왔지요. 사실 어떤 나라, 어떤 통치자 아래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막상 미국에 와서 살아보지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다시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꿈꾸시는 세상이 있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약육강식으로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자들의 먹이감 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 창조하신 세계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꿈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어떻게 그 세계를 만드실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솟아난 ‘한 싹’이 마침내 결실하여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한 싹’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떠한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사랑과 정직으로만 다스리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결과

서로를 물고 죽이는 천적이 사라지고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모두가 변화되어 함께 하나의 평화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더 높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함으로 평안해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곧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직장과 교회와 한인공동체부터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4. 나눔 질문

- 1)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한 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까?
- 2) 6-8 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 3) 어떻게 그렇게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5. 중보기도: 교회 공동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브엘세바 프로젝트(교회 본당 건축)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성도들의 건강, 탄자니아 홍신옥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6. 광고: 다음 목장모임 계획, BM 모임 참여하기, 수요일예배, 성서학당, 토요일새벽기도